

추계학술대회 개회사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님,
그리고 김두현, 민선향, 김영실, 조광래 한국비서학회 전회장님,
늘 한국비서학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상임이사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해주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한국 비서학회는 1992년 창립한 이래 27년 동안 우리나라의 비서학이 학문적 토대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뤄 독보적인 비서학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간의 열정과 헌신을 바치신 선배, 동료, 후배 학형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비서학이 전국 40여개 대학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양적으로 증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보다는 비서학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학이란 명칭도 글로벌비서, 국제사무관리, 비서경영, 비서행정, 경호비서, 국제비서, 비서사무관리, 항공사무비서 등으로 학문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AI비서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반영해서 한국비서학회는 그동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비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강조되었던 점은 역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휴먼비서”의 부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님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일상적인 삶의 동반자가 되었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시대’는 우리의 사회생활뿐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연구 및 교육환경 등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6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시대 비서의 핵심역량과 비서학』이란 주제로, 학술발표 및 산업체발표, 전체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휴먼비서 인재양성의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향을 설계 및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비서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오늘 학술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현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학술대회를 통해 비서학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제46회 추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일
한국비서학회장 심재권